



KWC 2019 French Wine

프랑스 와인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한편, 각 지역별로 마니아층도 많다. KWC 2019에서 수상한 프랑스 와인들의 면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르도, 론, 루아르, 랑그독 루시옹, 알자스, 샤블리, 그리고 아직은 국내 시장에서 생소한 서남부 지방의 와인까지 아주 다양하다. 덕분에 KWC 2019에서 수상한 와인들만 찬찬히 살펴봐도 프랑스 와인엔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글 <Wine Review> 편집팀 사진 Wikipedia, Pixabay

가성비 좋은 프랑스 와인 증가

프랑스 와인은 명성만큼이나 가격대도 높은 편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KWC 2019 수상 와인 리스트를 보면 남프랑스 와인들을 비롯해 평준화된 품질과 훌륭한 가성비를 갖춘 와인들이 많았다.

화이트 와인 & 샴페인 참여 증가

최근 몇 년간 KWC에 참여하는 스파클링 와인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샴페인도 마찬가지다. 한편 KWC 2019에서 눈에 띄는 점은 화이트 와인, 특히 샤블리 와인의 참여와 수상이 두드러졌다.

루아르와 서남부 지방의 와인

보르도, 부르고뉴, 론, 샴페뉴 등의 프랑스 와인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루아르 지역이나 서남부 지방의 와인들은 국내 시장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는데, KWC 2019에서는 이 두 지역의 와인들이 참여하여 다양성을 높였다.

Rhone



로버트 파커는 보르도 1등급과 부르고뉴 그랑 크뤼에 필적할 수 있는 와인을 론 지방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역사적으로도 론의 최고급 와인들은 보르도나 부르고뉴 못지 않는 명성을 얻었고, 가장 값비싼 와인으로 팔리기도 했다. 프랑스 동남부에 자리 잡은 론은 리옹 시의 바로 남쪽에 있는 비엔느 마을에서 아비뇽에 이르기까지 220km의 좁은 강안 유역을 가리킨다. 이 지방은 크게 북부와 남부로 나뉜다. 북부 론의 포도밭은 대부분 론 강안에 자리 잡고 있다. 때로는 좁고 경사가 급한 구릉지대에 포도밭이 자리 잡고 있다. 꼬뜨 로피, 콩드리외, 생 조셉, 크로즈 에르미따주, 에르미따주, 코르나스 등이 대표적인 마을이다. 북부에서 레드 품종은 시라 하나만 허용되고 화이트에는 비오니에, 마르산느, 루산느가 사용된다. 달리 남부는 지중해 연안 쪽으로 완만한 경사지와 산간 지역에 포도밭이 발달돼 있다. 포도 종도 북부에 비해 한결 다양하다. 레드의 주품종에 그르나슈, 시라, 무르베드르가 있고 화이트에는 그르나슈 블랑, 끌레레뜨 블랑슈, 마르산느, 루산느, 부르불랑, 비오니에 등이 있다. 남부의 명산지로는 샤토뇌프 뒤 빠쁘, 지공다스, 파벨, 바게이라스 등이 꼽힌다.

Domaine les Goubert

도멘 레 구베르

지공다스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이어 온 와이너 리로 카르티에(Cartier) 가족은 여러 세대 동안 이 도멘을 이끌어 왔다. 도멘의 이름은 현재 와인 양조를 담당하고 있는 장 피에르 카르티에(Jean Pierre-Cartier)의 어머니 이름인 아우구스타 구베르(Augusta Goubert)에서 따온 것이다. 장 피에르는 최대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2004년부터는 낮은 온도에서 침용과 발효를 진행하고 초기 발효를 더욱 부드럽게 시작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수입사 비노킥즈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Domaine les Goubert Cotes du Rhone Villages Sablet

Domaine Pierre Gaillard 도멘 피에르 가이야르

피에르 가이야르는 북부 론의 거장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본에서 양조학을 공부하고 론의 유명 생산자들인 비달 플레리와 이 기갈에서 일했다. 1981년에는 말리발(Mallevall) 지역에 첫 포도밭을 갖게 되는데, 이후 1987년 첫 빈티지를 출시했다. 지금은 북부 론에 외에 남프랑스에도 와인을 생산한다. 그는 오크를 사용하는 기술이 탁월해서 와인에서 풍부한 캐릭터를 발현시키면서, 때루아의 개성을 온전히 유지하는데 능숙하다. 수입사 샤프트레이딩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Pierre Gaillard Saint Joseph Blanc

Famille Brechet 파미유 브라체

브라체 가문은 남부 론에서 5세대에 이어 포도를 재배해 왔다. 현재는 이름난 와인생산자로 샤토뇌프 뒤 빠쁘 지역에서 샤프 드 보드위를 생산하며, 리락과 프로방스 지역에서도 와인을 생산한다. 샤프 드 보드위는 18세기 샤토뇌프 뒤 빠쁘 지역을 대표하는 성 중 하나였다. 이곳에서는 13가지 품종을 심고 있으나 모래 성분이 많은 포도밭이어서 그르나슈를 메인으로 사용한다. 좋은 포도만을 엄선해서 만들기 때문에 헥타르당 25h의 와인만 생산한다. 수입사 샤프트레이딩

수상 와인리스트 Gold Chateau de Vaudieu Rouge

● **Domaine des Bosquets** 도멘 데 보스께

원래는 파미유 브라체가 지공다스에서 생산하는 와인이었으나, 최근 도멘을 별도로 분리했다. 도멘 데 보스께의 포도밭은 지공다스에서도 고도가 높은 지대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수령이 오래된 포도나무들이 많다. 도멘 데 보스께는 이곳에서 적은 소출량으로 세심하게 와인을 생산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스타일은 우아하고 밸런스가 좋으면서도 숙성 잠재력이 좋은 와인이다. 수입사 샤프트레이딩

수상 와인리스트 Gold Domaine des Bosquets

● **Chateau Cabrieres** 샤토 까브리에르

샤토 까브리에르는 남부 론에 자리한 와이너리다. 15세기부터 네고시앙 역할을 해 온 곳이다. 아르노(Arnaud) 가문이 새로 운영을 맡게 되며 1955년부터 와인을 직접 병입 생산하기 시작했다. 샤토 까브리에르 포도밭에서는 샤토노프 뒤 삐삐를 만드는 데 필요한 13가지 포도품종을 모두 재배한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세 떼루아에서 각각 수확된 포도들은 고유한 개성과 특질을 지녀 품질 좋은 와인이 된다. 수입사 안시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Le Petit Cabrieres

● **Mur-Mur-lum** 뮈르뮈리움

벌들의 속삭임을 뜻하는 '뮈르뮈리움'은 벌의 왕령거리는 소리에 반한 설립자, 마크 피송(Marc Pichon)이 지은 이름이다. 그는 2008년, 와이너리의 첫 구획을 인수했고 이후 첫 번째 레인지 르 르투르(Le Retour)를 출시했다. 최상의 와인은 좋은 포도밭에서 나온다는 철학으로 살충제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자연과의 공생 관계에 집중하여 모든 포도는 유기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비록 역사는 짧지만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와이너리이다. 수입사 WS통상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Mur-Mur-lum Cuvee Anne

● **Delas** 들라스

1835년, 샤를 오디베르(Charles Audibert)와 필립 들라스(Philippe Delas)가 고프 뒤 론의 심장부에 위치한 와이너리를 매입하면서 들라스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들은 1879년 시디니 만국박람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갔다. 들라스는 180년 이상의 전통과 수년간 쌓은 노하우로 론 지역의 TOP 4 생산자에 등극하게 되었다. 매년 KWC에서 수상하며 론 와인의 우수성을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알리고 있다. 수입사 레벡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Gold Delas Chateaufeu-du-Pape Haute-Pierre



Languedoc-Roussillon

랑그독 루시옹은 프랑스 남부에 넓게 펼쳐져 있는 지역이다. 동쪽의 님(Nîmes)과 몽펠리에(Montpellier) 지역부터 지중해 연안과 스페인 국경 지역까지 이른다. 와인은 뱅 드 페이(Vin de Pays)가 약 70%로 비중이 상당히 높다. 1970년대만 해도 싸구려 와인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곳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20년 사이 와인의 품질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더욱이 다른 프랑스 와인에 비해 가격대는 낮은 편인데다 실험적이면서도 수준 높은 와인을 양조하는 생산자들이 늘어나면서 '숨은 보석'이 가득한 산지로 거듭났다. 무덥고 지중해성 기후를 띠는 지역으로 생산되는 와인은 레드가 80%로 압도적으로 높다. 까리냥, 무르베드르, 시라가 레드 와인 양조에 쓰이는 대표적인 품종. 화이트 와인은 마까브(Maccabeu), 끌레레뜨(Clairette)를 사용한다.

● **Clos Bagatelle** 끌로 바가텔

끌로는 포도밭, 바가텔은 농사짓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피에르 메르카디에가 랑그독 생 시니앙 지역의 포도밭을 매입한 뒤로, 그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이곳에서 포도를 재배하며 와인을 생산했다. 끌로 바가텔은 토양의 특징을 섬세하게 담으려고 한다. 석회암과 점토질 토양으로 이뤄진 라 로즈(La Lauze) 지역의 밭에서는 신선하고 부드러운 와인을, 편암과 전판암이 많은 도나디유(Donnadieu)의 밭에서는 미네랄리티가 느껴지는 와인을 낸다. 수입사 문도비노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Clos Bagatelle Veillee d'Automne

● **Les Javelles** 레 자멜

레 자멜은 1995년부터 프랑스 남부의 랑그독 루시옹에서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다. 합리적인 가격과 한 병 한 병 공들여 만든 듯한 품질이 특징이다. 소비자 의견에 귀를 기울여 만든 다양하고 특별한 와인을 20여 년간 선보여 왔다. 레 자멜의 와인메이커인 캐서린은 여성 와인메이커로, 레 자멜이 가진 개성과 맛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양조 과정에 세심하게 참여해 와인 품질을 높이고 있다. 수입사 신세계 L&B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Les Javelles Cabernet Sauvignon

Bronze Les Javelles Syrah

● **Chateau de l'Ou** 샤토 드루

샤토 드루는 1998년에 설립된 랑그독 루시옹 지역 와이너리다. 네 군데로 흩어진 54ha 크기의 밭에서 유기농 재배 방식에 따라 기른 포도로 와인을 만든다. 네 개의 포도밭은 서로 다른 토양과 뚜렷한 특성을 드러낸다. 땅의 성질에 맞게 재배하는 품종도 다르다. 특히 여름밤에 지중해의 시원한 바닷바람을 잔뜩 맞은 샤토 드루의 시라는 숙성시간이 길어 진한 풍미와 집중도가 높은 질감을 가진 와인으로 재탄생된다. 수입사 LB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Chateau de l'Ou Secret de Schistes

● **Chateau Lavabre** 샤토 라바브르

샤토 라바브르는 픽생루(Pic Saint-Loup) 지역의 유서 깊은 와이너리다. 오크어로 분수를 뜻하는 'Lavabre'는 척박한 땅에 분수처럼 물이 솟게 해 번영과 부흥을 바라는 의미로 쓰였다. 60ha에 달하는 포도밭은 쥐라기에 형성된 키메리지안(Kimmeridgian) 토양으로 이뤄졌다. 점토에 가깝고 석회석이 많은 토질로, 와인에 풍부한 미네랄리티를 더한다. 2017년, 샤토 푸에슈오에 인수되어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고 있다. 수입사 와이넵

수상 와인리스트

Gold Chateau Lavabre

Gold Chateau Lavabre La Closerie

Silver Chateau Lavabre Les Demoiselles de Lavabre

● **SPH Gerard Bertrand** 제라르 베르트랑

제라르 베르트랑은 프랑스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생산자다. 1992년 설립된 이후부터 특색 있고 유서 깊은 랑그독 루시옹 지역 포도밭을 매입해 왔다. 현재는 14개의 에스테이트를 보유해 프랑스 남부에서 가장 큰 와이너리 중 하나로 성장했다. 개성과 철학이 또렷한 와인을 연달아 내놓으며 2010년 이후에는 유력 와인 미디어 등에서 남프랑스 와인 세계를 재정의한 생산자로 끊임없이 주목되고 있다. 수입사 하이트진로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SPH Gerard Bertrand Cigalus Blanc

Silver SPH Gerard Bertrand Cigalus Rouge

Bronze SPH Gerard Bertrand Grand Terroir Tautavel

Bronze SPH Gerard Bertrand Terroir Minervois

● **Domaine Gayda** 도멘 게이다

2002년, 원예 학자였던 팀 포드(Tim Ford)와 투자가 앤스니 레코드(Anthony Record), 와인메이커 뱅상 샹소(Vincent Chansault)가 뜻을 모아 설립했다. 이 와이너리는 랑그독의 카르카손(Carcassonne)에서 남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석회석, 슬레이트, 진흙, 화강암 등 다양한 토양으로 구성된 8개의 포도밭은 도멘 게이다의 와인을 더욱 특별하게 해준다. 특히 개별 양조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 각 포도밭의 개성을 살린 와인을 만들고 있다. 수입사 KS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Gold Domaine Gayda Chemin de Moscou

Silver Domaine Gayda Cepage Viognier

Silver Domaine Gayda Figure Libre Freestyle

● **Domaine Montrose** 도멘 몽로즈

지중해에서 15km 떨어진 남프랑스의 페즈나(Pezenas)에서 빛깔 좋은 로제를 빚는 와이너리이다. 1701년, 프랑스 왕으로부터 도마뱀 문양을 하사받아 현재의 포도밭에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도멘 몽로즈는 11대에 이르는 가족 경영 와이너리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이들은 포도의 신선도를 위해 밤에만 수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15~18°C로 저온 발효를 통해 과일 향을 최대한 살리며, 품종과 떼루아의 특징을 위해 개별 발효 후 블렌딩한다. 수입사 국순당

수상 와인리스트

Trophy Rose Domaine Montrose



Bordeaux

보르도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지라고 소개해도 이견이 없을 곳이다. 와이너리를 칭하는 '샤또'의 개념이나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등을 블렌딩하는 일명 보르도 스타일들이 세계적으로 벤치마킹된 사례들만 봐도 그렇다. 보르도는 행정구역상 아키텐 지방에 속한다. 이 방대한 지방에는 세 개의 큰 강이 흐르는데, 가론느(Garonne), 도르도뉴(Dordogne), 그리고 이 두 강이 합수되며 대서양으로 유입되는 지롱드(Gironde) 강이 있다. 강들을 중심으로 보르도는 크게 좌안과 우안으로 나뉜다. 좌안은 그 유명한 1855년 등급의 배경지이다. 메독, 오메독, 그라브, 삐삐 레오냥, 소테른이 이에 든다. 그 중 오메독에는 생페스테프, 뽀이 약, 생질리앙, 마고 등 유명한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우안에는 생페밀리옹, 뽀므롤, 프론삭 등이 있다. 보르도에서 생산되는 와인의 90%는 레드 와인으로, 여러 품종을 블렌딩한다. 허용되는 품종은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 말백, 뽀피 베르도 등 다섯 가지. 좌안에서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우안에서는 메를로가 메인이다. 한편 화이트 와인에는 소비뇽 블랑과 세미용이 사용된다.

Chateau de Belcier 샤또 드 벨시에

보르도 동쪽 끝자락에 있는 고프 드 까스띠옹(Côtes de Castillon)에 자리를 잡고 있는 와이너리이다. 생페밀리옹과 인접해 있는 이곳은 페루아의 전통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고프 드 까스띠옹에 있는 포도밭은 보르도에서 가장 오래된 곳 중의 하나로 꼽힌다. 샤또 드 벨시에에는 18세기 말에 지어졌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재건을 거듭한다. 1986년부터는 보험회사 그룹인 MACIF가 매입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보르도의 전통에 입각하여 포도밭과 셀러를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변함없이 고품질 와인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Chateau de Belcier

Chateau Pipeau 샤또 뽀뽀

1929년, 조르주 메스트르길렘(George Mestreguilhem)이 설립했고 생페밀리옹에서 3km 떨어진 곳에 자리해 있다. 4대째 경영을 이어오며, 생페밀리옹 그랑 크뤼 AOC의 와인을 만든다. 재배부터 수확까지 EMS(환경보호 관리 시스템)를 준수하고 SO₂와 살충제 사용량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법을 추구한다. 또한 온도 조절 장치가 달린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침용과 발효를 진행한다. 한편 데일리 보르도 와인인 샤또 조아냥(Chateau Joinin)도 생산하고 있다. 수입사 WS통상
수상 와인리스트 Best France Red Chateau Pipeau **Bronze** Chateau Joinin

Kressmann 크레스만

1871년에 설립된 크레스만은 보르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이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보르도 중저가 와인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파트너십을 맺어온 보르도 전역 70여 개의 포도원과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퀄리티 높은 포도를 공급받는다. 300ha의 포도밭 또한 소유하여 연평균 3백만 병의 와인을 판매한다. 크레스만은 1897년 보르도 최초의 브랜드, 모노폴 레드를 탄생시켰다. 페루아를 정직하게 담은 '보르도 AOC 와인의 교과서'라 불리며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수입사 레벡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Gold Kressmann Monopole

Jean-Noël Boidron 장 노엘 보이드롱

보이드롱 가족은 1760년대부터 생페밀리옹 지역의 와인 생산에 관여했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고프빈 마쇼트(Corbin Michotte) 포도밭은 1726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와이너리보다 더 오래된 곳이다. 장 노엘 보이드롱은 현재 7대손으로 가족 소유의 포도밭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 이들 가문 소유의 포도밭은 생페밀리옹을 시작으로 뽀므롤 인근 5곳에 펼쳐져 있으며, 이 중 샤또 고프빈 미쇼트는 총 7.1ha 규모이다. 수입사 비노트레이딩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Chateau Corbin Michotte

Maison Bouey 메종 부에이

1821년 메독 지역에 포도밭을 구입하면서 와인 양조를 시작한 메종 부에이는 와인생산 지이면서 네고시앙이기도 하다. 메종 부에이가 소유하고 있는 샤또 메종 블랑쉬는 19세기 보르도 와인 바이블에 소개된 유명한 와이너리로 1932년에 크뤼 부르주아 등급을 받았다. 최근 메종 블랑쉬는 '보르도 와인의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는 스테판 드흐농쿠르(Stephane Derenoncourt)의 자문을 받아 품질에서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다. 수입사 비노파라다이스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Chateau Maison Blanche Cuvee Parcelle

Chateau Ramage la Batisse 샤또 라마주 라 바티쎌

샤또 라마주 라 바티쎌는 생 소베르에 자리한 와이너리다. 샤또 라푸르, 라피프, 무통 로칠드가 있는 뽀이약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 한때 메독에서 가장 좋은 땅으로 불리기도 했다. 85ha 넓이의 포도밭에서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를 각각 절반씩 재배한다. 2003년, 메독 지역 와인 분류 체계인 크뤼 부르주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인 크뤼 부르주아 수베리에(Cru Bourgeois Superieurs)로 승격한 바 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Chateau Ramage la Batisse L'Enclos de Ramage

Clarence Dillon Wines 클라랑스 딜롱 와인

클라랑스 딜롱 와인은 샤또 오브리옹 등 보르도 그랑 크뤼 1등급 샤또를 소유한 도멘 클라랑스 딜롱의 캐주얼 와인 브랜드다. 설립자 클라랑스 딜롱의 증손자인 록셈부르크의 왕자 로버트(Robert)가 2005년에 새로 선보였다. 샤또 오브리옹 와인을 만드는 방식과 노하우를 재해석해 만든 클라랑델(Clarendelle) 와인인도 유명세를 얻었다. 클라랑델은 그랑 크뤼 1등급에 준하는 품질을 갖춘 합리적인 가격의 와인 레인지다. 수입사 신동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Gold** Clarendelle Rose

Edmond de Rothschild Heritage 에드몽 드 로치드 에리티주

에드몽 드 로치드 에리티주는 보르도 1등급 샤또인 라피프 로치드를 소유한 로치드 가문이 운영하는 기업이다. 와인 및 호스피탈리티 산업, 낙농업 등에 두루 관여하고 있다. 로치드 가문은 1973년, 더 다양한 와인 포트폴리오를 꾀하며 아직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던 샤또 골락(Chateau Clarke)을 매입하는 등 와인 분야의 저변을 꾸준히 넓혀왔다. 현재는 프랑스 내외에 와인 생산지를 8곳 이상 보유하고 있다. 수입사 신동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Chateau Clarke





Loire

루아르 지방은 서쪽의 브르타뉴(Bretagne) 반도를 거쳐 대서양으로 유입되는 루아르 강 일대를 가리킨다. 이곳의 와인 산지는 크게 4개 지역으로 나뉜다. 첫 번째가 느베르(Nevers)에서 투르(Tours)에 이르는 내륙 쪽의 상트르(Centre) 지역, 두 번째가 이 지방의 거점 도시인 투르 주변의 와인 산지, 세 번째는 앙주와 소뮈르(Anjou-Saumur) 일대, 네 번째가 대서양 언저리에 위치한 낭트(Nantes) 주변의 산지이다. 루아르 지방은 프랑스의 서북쪽 바닷가에 놓여 있어 전반적으로 날씨가 서늘한 편이다. 주로 재배되는 품종들도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 내륙의 상트르 지역에 있는 상세르(Sancerre)와 뿌이 푸메(Pouilly-Fumé)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소비뇽 블랑 와인들을 생산한다. 레드 품종으로는 피노 누아가 사용된다. 중간 지대인 앙주, 소뮈르, 투르 지역에서는 화이트는 슈냉 블랑, 레드에는 까베르네 프랑이 재배된다. 마지막으로 대서양에 인접한 낭트 지역에서는 멜롱 드 부르고뉴(Melon de Bourgogne)라고 불리는 뽀스까떼가 지배적이다.

● Jean-Maurice Raffault 장 모리스 라포

장 모리스 라포는 루아르 벨리에 설립된 와인너리다. 1693년부터 현재까지 14대째 쉬농 지역에서 와인을 만들어 왔다. 쉬농 와인의 역사를 함께 해 온 곳이나 다름 없다. 포도 재배는 쉬농 AOC 지역 내에 포함 50ha에 달하는 7개 포도밭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포도밭은 유기농 재배 방식으로 운영된다. 슈냉 블랑 품종으로 만든 쉬농 블랑, 까베르네 프랑으로 빚어낸 쉬농 로제 등이 대표 와인으로 알려져 있다. 수입사 솔트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Jean-Maurice Raffault Chinon Blanc

Silver Jean-Maurice Raffault Le Puy

● Domaine Gadais Pere et Fils 도멘 가데

1952년에 루이 가데(Louis Gadais)가 설립한 와인너리다. 4대째 가족 경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루아르의 세브레 에 메인(Sevre et Maine)과 상세르(Sancerre) AOP 지역에서 멜롱 드 부르고뉴 품종으로 최상급 뽀스까떼(Muscadet)를 생산한다. 편마암과 화강암이 주를 이루는 토양과 40년에서 90년 사이의 수령을 가진 고목에서 생산된 포도는 뛰어난 미네랄리티와 풍미를 드러낸다. 유기농 재배 방식을 고수하는 와인너리이기도 하다. 수입사 유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Domaine Gadais Pere et Fils Les Perrieres Monopole

Chablis

샤블리는 파리에서 약 150km의 동남향에, 부르고뉴 최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부르고뉴 와인 산지 중 하나로 간주되지만, 꼬뜨 도르 지역과는 모르반 힐(Morvan hills)로 분리되어 있다. 샤블리에서는 오직 샤르도네로 화이트 와인만 빚는다. 대륙성 기후를 띠는 이 지역은 여름은 무덥고, 겨울은 춥고 길게 이어진다. 봄의 서리는 골칫거리다. 토양은 석회암질과 진흙으로 되어 있으며 쥐라기대의 키메리지앵(Kimmeridgien) 토양이 한데 혼재돼 있다. 이러한 페루아에서 산도는 높고, 섬세하면서 미네랄 풍미가 잘 느껴지는 와인이 만들어진다. 굴과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으로 샤블리를 꼽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샤블리 와인은 4개의 품계로 나뉜다. 최상급의 그랑 크뤼, 두 번째로 프르미에 크뤼, 세 번째 일반 와인으로 샤블리, 그리고 제일 낮은 품계로서 뽀띠 샤블리(Petit Chablis)가 있다.

● Domaine Samuel Billaud 도멘 사무엘 빌로

사무엘 빌로는 샤블리의 명문 빌로 시몽(Billaud Simon) 출신으로 2004년 도멘 페블리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독립해 나와 자신의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도멘 사무엘 빌로는 2009년에 설립된 와인너리로 그랑 크뤼와 프르미에 크뤼 발, 그 외 샤블리의 우량 밭들을 소유하고 있다. 포도 재배에는 유기농법을 도입했다. <Wine Advocate>의 닐 마틴은 '머지않아 라브노, 도비사의 뒤를 이어 샤블리 최고의 도멘이 될 것'이라고 찬사를 보낸 바 있다. 수입사 비노파라다이스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Samuel Billaud Chablis Les Grands Terroirs

● Domaine Nathalie & Gilles Fevre 도멘 나탈리 앤 질 페브르

페브르는 1745년부터 대를 이어 포도 재배에 관련된 일에 종사해 온 가문이다. 샤블리 땅 한가운데 포도밭을 두고 밭 관리와 포도 경작에 오랫동안 힘써 왔다. 2004년에 이르러서 페브르의 이름을 내건 와인을 만들고 있다. 포도 양조학을 공부하던 페브르가 후손 질이 동료였던 나탈리와 결혼해 도멘 페브르를 세운 뒤부터다. 평가기준이 높은 친환경 인증인 HVE를 획득하는 등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며 움직이는 와인너리다.

수입사 LB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Domaine Nathalie & Gilles Fevre Chablis



● Olivier Tricon 올리비에 트리콩

본에서 와인 메이킹과 성분 분석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올리비에 트리콩은 1998년, 가족 사업이었던 도멘 드 브루(Domaine de Vauroux)를 인수했다. 대부분의 포도밭은 샤블리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키메리지앵과 석회암질을 포함한 토양으로 뛰어난 샤블리 와인이 양조된다. 이 와인너리는 샤블리 등급부터 프르미에 크뤼, 그랑 크뤼 등급까지 다양한 샤블리를 생산하고 있다. '진정한 샤블리 와인메이커로 불리며 그 품질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수입사 W5통상

수상 와인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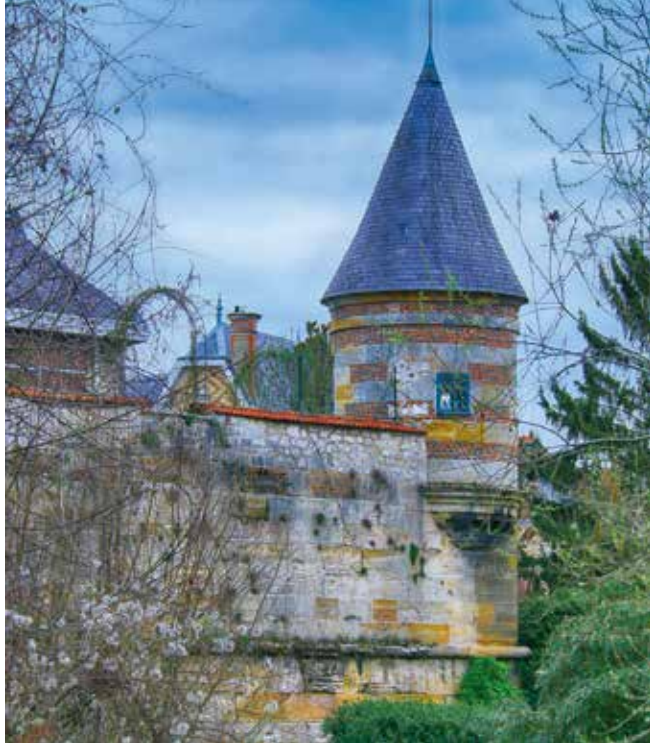
Bronze Olivier Tricon Chablis Premier Cru Montee de Tonnerre

● Laroche 라로쉬

세계적인 화이트 와인 명가, 라로쉬는 1850년에 설립되었다. 최초로 와인을 만들던 역사적인 종교 유산, '오베디앵 세리(L'Obediencerie) 수도원'을 본사로 사용하며 1,000년의 숨결을 이어오고 있는 와인너리이다. 라로쉬는 유기농 와인너리로 도약하여 샤블리 지역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역사, 재배 면적, 생산량, 퀄리티의 모든 점에서 뛰어나며, 현재 샤블리 최고의 생산자를 넘어 베스트 프랑스 와인 생산자로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수입사 레뱅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Laroche Chablis Saint Martin



Champagne

가장 유명한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을 내는 지방이다. 흔히 지역 명을 이야기할 때는 원어 그대로인 샴페뉴를, 와인을 지칭할 때는 영어 표현인 샴페인을 쓴다. 북위 49° 선상에 물려있는 샴페뉴는 프랑스 와인 생산지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자리 잡고 있다. 대서양의 영향을 받는 준 대륙성 기후대에 속하며 연중 평균 기온이 10°C 이하다. 봄의 서리, 여름의 우박, 추운 겨울 등 훌륭한 와인 생산지 치고는 기상 조건이 좋은 편은 아니다. 다행히 거대한 숲의 보호막, 강물, 일조량 그리고 지층의 기온을 조절하고 습기를 유지해주는 미세기후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마른계곡(Vallée de la Marne)을 중심으로 발달한 백악질의 토양은 거대한 지층을 이루면서 와인 생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샴페뉴의 포도 산지는 랭스 산악지대, 마른 계곡, 꼬뜨 데 블랑(Cote des Blancs), 꼬뜨 데 세잔느(Cotes de Sezanne), 오브(Aube) 등으로 나뉜다. 한편 샴페인에 허용되는 품종은 샤르도네, 피노 누아, 피노 피니에까지 세 가지다.

Champagne Philizot & Fils 샴페인 필리조 에 피스

스테판 필리조(Stephane Philizot)가 2008년 샴페뉴 에페르네 지역의 샴페인 하우스 '르 콩트 드 랑타쥬'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와이너리이다. 4대에 걸쳐 와인을 생산해 온 집안에서 태어난 스테판은 샴페인 랑송의 수석 양조자였던 삼촌 제라르와 함께 2002년부터 샴페인을 만들었다. 이들의 샴페인은 뛰어난 품질과 놀라운 가성비로 자랑한다. 국내에는 2종이 수입되는데, 누메로8은 블랑 드 블랑 샴페인으로 국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 에디션이다.

수입사 비노파라다이스

수입 와인리스트
Silver Champagne Philizot & Fils Numero 8 Blanc de Blanc Paradise Edition

Champagne Charles de Cazanove 샴페인 샤를 드 카자노브

샤를 드 카자노브는 샴페뉴의 꼬뜨 데 블랑(Cotes des Blancs)에서 2세기동안 전통을 이어온 샴페인 생산자다. 1811년에 문을 연 카자노브는, 설립자의 아들인 니콜라스의 열정과 노력을 통해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20세기 후반에는 유명 극장과 영화제 행사 등에서 협업 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끊임없이 명성을 쌓았다. 현재 한해 300만 병 이상 와인을 생산하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샴페인으로 각광받고 있다. 수입사 신세계 L&B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Champagne Charles de Cazanove

Champagne Deutz 샴페인 도츠

1838년, 윌리엄 도츠(William Deutz)와 피에르 젤터만(Pierre-Hubert Geldermann)은 샴페뉴의 아이 지역에 도츠를 설립했다. 6대째 와인 생산을 이어오고 있으며, 샴페인 하우스 중에서도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신선함과 섬세함'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끊임없는 혁신과 전통적인 양조 방식을 고수한다. 도츠의 년빈티지 포함 전 레인의 샴페인은 처음 압착한 주스만을 사용하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아이 지역의 반경 35km 포도밭에서 포도를 수확해 만든다. 수입사 레뱅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Trophy Sparkling** Deutz Brut Classic

Charles d'Auteuil 샤를 도떼일

1890년 레온 트리보(Leon Tribaut)는 샴페인으로 이미 유명했던 에페르네(Epernay) 지역에서 와인 양조를 시작하였다. 이후 현 오너인 미셸 트리보(Michel Tribaut)는 1999년, 샴페인 전문가들을 모아 지역 소규모 생산자 그룹인 샴페인 드 비네롱(Champagnes de Vignerons)을 창설했다. 트리보 가문이 운영하는 샤를 도떼일은 이 그룹의 대표적인 샴페인 하우스이다. 그들은 마케팅 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가성비 좋은 샴페인을 만들고 있다. 수입사 레뱅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Gold Charles d'Auteuil Champagne Brut Grand Cru Blanc de Blanc

Gosset 고세

1584년 아이 지역의 시장이었던 삐에르 고세(Pierre Gosset)가 설립했다. 샴페뉴의 가장 오래된 샴페인 하우스로, 16대 직계손까지 가족 소유 및 경영으로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특유의 젓산 발효를 거치지 않는 고세만의 스타일로 청량감과 포도 본연의 향을 극대화한다. 2013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현존하는 문화유산(Entreprise de Patrimoine Vivant)'으로 지정되어 와인 양조 노하우와 장인 정신을 인정받았다. 수입사 레뱅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Gold** Champagne Gosset Extra Brut
Silver Champagne Gosset Grand Rose



Alsace

보주(Vosge) 산맥의 동쪽, 라인 강의 서쪽에 위치한 알자스는 프랑스와 독일이 번갈아가며 주인으로 들어서면서 두 나라의 문화가 혼재해 있는 곳이다. 알자스의 명품 와인들은 모두 화이트 와인이다. 그리고 이 와인은 이웃한 독일 라인 계열의 와인과 유사하다. 독일 점령 하에서 알자스는 독일의 의도적인 정책으로 평범한 와인을 대량 생산해야만 했다. 다시 프랑스 영토로 귀속된 후에는 와인 품질의 경쟁력이 떨어져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포도품종을 엄격히 선별하고 여러 가지 자체 규제를 통해 차츰 품질이 개선되면서 이제는 독특한 이미지와 스타일로 명성을 되찾게 되었다. 리슬링, 게뷔르츠트라미너, 삐노 그리 그리고 뫼스카가 이 지역의 노블 품종이다.

Domaines Schlumberger 도멘 슬룸베르거

니콜라스 슬룸베르거(Nicolas Schlumberger)가 1810년에 설립한 알자스 지방의 와이너리다. 포도밭 관리와 양조 과정에서 전통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양 침식을 막기 위해 포도밭 사이사이 벽돌벽을 세우거나 말을 포도 재배에 활용하기는 등 이색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 알자스 지방에서 그랑 크뤼 포도밭을 가장 많이 소유한 생산자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수입사 신세계 L&B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Domaines Schlumberger Gewurztraminer **Bronze** Domaines Schlumberger Pinot Gris

Joseph Cattin 조셉 까뎡

프랑수아 까뎡(Francois Cattin)은 1720년 뵈크틀린스호펜(Voegtlinshoffen)에 조셉 까뎡을 설립했다. 포도밭은 220~330m 고도의 언덕에 자리하며, 배수가 잘 되는 깊은 토양층으로 이회토와 석회암, 점토로 구성되어 있다. 1978년 그의 자손, 자크(Jacques)와 장 마리(Jean Marie)는 포도밭을 60ha 이상 확장해 생산량을 늘리는 동시에 최신 양조 설비를 구축했다. 이로써 조셉 까뎡은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 가치를 계승하는 가족 경영 와이너리로 성장하게 되었다. 수입사 WS통상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Joseph Cattin Alsace Gewurztraminer Grand Cru Hatschbourg

South West France

서남부 지방은 보르도의 외곽 지역부터 남쪽과 내륙 지방 군데군데에 펼쳐져 있다. 다시 말해 보르도가 속해 있는 아키텐 지방과 미디 피리네 서쪽 지방을 아우르며, 16,000ha의 달하는 포도밭이 있다. 알려진 AOC 지역으로는 가이얏(Gaillac), 베르제락(Bergerac), 까오르(Cahors), 마디랑(Madiran) 등이 있다. 1세기 경 로마인들이 이 지방에 들어와 포도 경작을 시작했고 14세기 까오르(Cahors) 마을의 와인인은 당시 아비뇽 근처 까르팡트라스(Carpentras)에 있던 교황 요한 22세가 즐겨 찾던 와인으로 알려졌을 정도이다. 가이얏과 마디랑 마을에서는 11세기 베네딕트 사원에 의해 와인 산업이 융성했다.

Plaimont 플레몽

1979년 프랑스 남서부 가스코뉴 지방의 세 마을, 플레장스(Plaisance), 에냥(Aignan), 생몽(Saint Mont)의 1,100명의 생산자들이 모여 설립한 조합이다. 플레몽의 이름도 이 세 마을의 이니셜을 조합해 만든 것이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지역의 토착 품종 포도를 지켜오며 가치치기 및 수확량 제한을 통해 과실의 질을 향상시켰다. 또 토양을 조사하고 전통적인 손 수확을 고수하는 등 철저한 품질 관리로 지역의 전통적 와인을 만들어 왔다. 수입사 비노파라다이스

수상 와인리스트
Gold Plaimont La Madeleine
Silver Plaimont Plénitude
Silver Plaimont Echo Indigo White
Bronze Plaimont Echo Indigo Red
Bronze Plaimont Heritage Red

